

조사보고서
(배포용)

전북지역 상장법인 현황 분석

(2017 사업연도 기준)

2018. 5



전주상공회의소



목 차

1. 개 황	1
2.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2
3. 업종별 분포현황	4
4. 전북지역 상장법인 결산 실적	4
가.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실적	4
나.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7
다.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7
5. 대책 및 제언	4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분석

1. 개 황

-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업이 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상장기업의 인지도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고, 상장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로인해 투자가 활성화 됨. 따라서 상장기업이 지역 내에 얼마나 있는냐는 그 지역의 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
- 전주상공회의소가 4월 20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천1백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전북지역 업체의 한국거래소 등록된 상장법인 수는 지난해와 같은 1.0%에 불과한 수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법인 9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12개사, 코넥스 2개사 등 총 23개 업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은 우리나라 대표증권시장으로 1956년 개장 이래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대형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1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견지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은 IT, BT, CT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 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코스닥 상장기업은 2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피 상장기업은 1개사가 감소하였고, 코넥스 상장기업은 변동이 없었음. 한편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수는 지난해 전체 2천1백94개사로 전년 대비 60개사가 증가함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단위 : 개)

권역	수 도 권			충 청 권				전 라 권			경 상 권					기 타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해외	
코스피	391	22	141	10	26	15	4	10	9	7	37	22	16	40	15	4	7	1	777
코스닥	430	50	413	32	59	49	4	9	12	9	42	31	8	47	38	13	3	20	1,269
코넥스	60	5	38	9	6	8	-	4	2	3	-	1	1	2	4	4	1	-	149
소 계	881	77	592	51	91	72	8	23	23	19	79	54	25	89	57	21	11	21	2,194
권역별 합계	1550(70.6%)			222(10.1%)				65(3.0%)			304(13.9%)					53(2.4%)			1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전체 상장법인의 70.6%(1,550개)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이 13.9%(304개), 충청권 10.1%(222개), 전라권 3.0%(65개) 순으로 나타내며 심각한 지역편중 현상을 보임
- 특히 전라권은 광주, 전남, 전북을 통틀어도 비중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역적 열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권 전체 65개 중 23개로 35.4%에 불과함
- 해외를 포함한 시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18개 시도 중 12개 시도의 상장법인 수가 증가했으며, 그 중 경기(568→592), 서울(860→881), 인천(70→77) 등 수도권의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산(89→79)을 포함한 3개 시도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증 가 : 경기(568→592), 서울(860→881), 인천(70→77), 충남(86→91), 충북(69→72), 경북(54→57), 전남(16→19), 강원(19→21), 광주(22→23), 제주(10→11), 전북(22→23), 해외(20→21)
 - 감 소 : 부산(89→79), 대구(55→54), 대전(52→51)
 - 동 일 : 세종(8), 울산(25), 경남(89)

2.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 전라북도내 상장법인 23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등록법인 9개사, 코스닥 12개사, 코넥스 2개사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익산시에 상장기업이 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5개사, 전주시 4개사, 완주군 3개사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익산시 코스피 상장기업 1개 감소, 코스닥 상장기업 1개 증가
 - 전년도 대비 정읍시 코스닥 상장기업 1개 증가

[전라북도내 상장법인 자치단체별 현황]

(단위 : 개)

지역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합계
코스피	1	1	-	4	2	1	-	9
코스닥	2	2	1	1	4	1	1	12
코넥스	1	-	-	-	1	-	-	2
합계	4	3	1	5	7	2	1	23

- 익산의 (주)넥솔론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제일홀딩스(주)가 새롭게 상장되었으며, 정읍시의 경우 이원컴포텍(주)가 올해 충남 논산에서 정읍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전년대비 1개사가 증가하였음
-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업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전용의 자본시장인 코넥스에 등록된 업체는 전주 지역의 비나텍(주), 익산지역의 (주)유셀 등 2개사로 집계됨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명
코스피	광전자(주)	익산시 약촌로8길 62-8	박래원
	대우전자부품(주)	정읍시 공단2길 3	서준교, 서중호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167	임한순, 김형웅
	백광산업(주)	군산시 임해로 494-16	김성훈
	(주)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군산시 외항7길 20	이규봉, 노상섭
	일진머티리얼즈(주)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허재명, 주재환
	(주)제이비금융지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김 한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외항로 1245	권육상
	(주)한농화성	군산시 외항1길 24	김응상, 경상호
코스닥	(주)네패스신소재	익산시 석암로 99	이병구, 고영욱
	(주)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이계창
	메이슨캐피탈(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강승태
	(주)신진에스엠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김홍기
	(주)오디텍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7	박병근
	(주)우노엔컴퍼니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58-15	김종천
	이원컴포텍(주)	정읍시 첨단1로 8	류일주
	제일홀딩스(주)	익산시 고봉로 228	민동기
	(주)창해에탄올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5	임성우, 이연희
	(주)코센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이제원, 박형채
	(주)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이문용, 김홍국, 이강수
	(주)하림홀딩스	익산시 고봉로 228	김홍국
코넥스	(주)유셀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65	차재영
	비나텍(주)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성도경

3. 업종별 분포현황

- 도내 상장기업은 업종별로 화학제품 제조업체 7개, 음식료, 전기전자, 금속기계 제조업체 각각 4개, 금융업종 3개, 종이제품 제조업체 1개의 분포를 보임

[전라북도 상장법인 업종별 분포현황]

(단위 : 개)

지역	음식료	종이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금속기계	금융업	합계
코스피	-	1	4	2	1	1	9
코스닥	4	-	2	1	3	2	12
코넥스	-	-	1	1	-	-	2
합계	4	1	7	4	4	3	23

- 지난 2016년 기준 우리 전북지역의 사업체 14만 7,505개 중 상장기업은 23개로 약 0.0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라북도 제조업체(총 11,768개) 기준 섬유·의복 제조업, 목재·나무 제조업, 비금속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상장법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종별 업체현황]

(단위 : 개)

업종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나무	종이·인쇄	화학제품	비금속	금속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기타	합계
업체수(개)	4,057	896	683	550	828	749	2,237	527	493	748	11,768
비율(%)	34.5	7.6	5.8	4.7	7.0	6.4	19.0	4.5	4.2	6.4	100.0

4. 전북지역 상장법인 결산 실적

가.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실적

- 상장법인 21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 사업년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97%로 1.24% 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로 전년 대비 1.2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은 2조 9,901억 4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1,731억 4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585억 2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6년	2,764,095	130,694	89,251	4.73	3.23
2017년	2,990,148	173,142	58,521	5.97	2.02
증 감	136,053(4.9%)	42,448(32.5%)	△30,730(△34.4%)	1.24%p	△1.21%p

- 분석대상기업 21개 중 14개 기업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함

[전북지역 상장법인 흑자·적자기업 현황]

(단위 : 개)

흑자기업		적자기업		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12	2	5	2	21

- 분석대상기업 21개의 2017년 말 부채비율은 43.78%로 전년 대비 13.02% 포인트 감소하며 재무 건전성이 개선됨
- 부채 총계는 2조 404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고, 자본 총계는 4조 6,604억 8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함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2016년	2,211,238	3,892,661	56.81
2017년	2,040,438	4,660,488	43.78
증 감	△170,800(△7.7%)	767,827(19.7%)	△13.02%p

나.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 2017 사업년도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5%로 전년 대비 1.64% 포인트 증가한 반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1.14%로 전년 대비 2.57% 포인트 감소함

- 매출액은 1조 4,267억 2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76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162억 2천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17 사업년도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6년	1,371,973	81,070	50,861	5.91	3.71
2017년	1,426,722	107,699	16,226	7.55	1.14
증 감	54,749(4.0%)	26,629(32.9%)	△34,635(△68.1%)	1.64%p	△2.57%p

다.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 코스닥 상장법인의 2017년도 영업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3%로 전년 대비 0.99% 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3.47%로 전년 대비 0.57% 포인트 증가함
- 매출액이 1조 4,447억 6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도 669억 1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고, 순이익도 501억 9천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7 사업연도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6년	1,370,270	49,919	39,822	3.64	2.91
2017년	1,444,765	66,911	50,197	4.63	3.47
증 감	74,495(5.4%)	16,992(34.0%)	10,375(26.1%)	0.99%p	0.57%p

5. 대책 및 제언

- 기업이 시장에 상장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기업공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우리 지역 상장법인의 수는 도내 14만 7,505개 사업체 가운데 2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업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권으로부터 조달 받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기업 본사 유치와 더불어 향토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우리지역 기업들도 원활한 자금조달과 함께 대내외적인 기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